

# 日帝의 對韓植民主義 經濟·軍事政策의 特性

金雲泰\*

日帝의 韓國殖民化의 動因이 日本의 古代國家形成 以來의 각종 문헌이나 韓日關係史에 관한 記錄에서 발견할 수 있는 各種 類型의 植民主義同化政策이데올로기의 基因한 바가 커운은 이는 잘 알려진 사실이다.<sup>(1)</sup> 韓日關係史에 있어 특히 이와 같은 이데올로기의 要因이 日本의 對韓侵略을 正當화하고 助長하는 政治·心理的 契機가 되었던 것이 事實이다. 그렇다고 해서 經濟上·國防上의 要因이 특히 近代史展開에 있어 根本的인 動因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여기서는 經濟上, 國防上의 要因을 중심으로 對韓植民政策의 特性를 살펴보자 한다.

日本帝國主義が 西歐先進國에 비하여 後進의이었기 때문에 資本主義의 조숙한 발전을 서둘러 추구하는 가운데 對內外的으로 軍事侵略的性格을 띠었음은 주지하는 바이다. 그리고 韓半島가 古來로 日本의 지배총을 위하여 아시아大陸侵略의 거점으로 또는 그 교두보로서 인식되어 왔음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日本은 對外的으로 先進資本主義列強의 침략으로부터 自國을 방어하는 동시에 自國의 資本主義成長에 필요한 朝鮮·中國大陸에서의 원료수탈과 投資對象 및 市場을 획득하기 위하여 武力を 앞세워 우리에게 문호개방을 요구하고 우리민족에게는 전혀 생소한 資本主義의 經濟組織과 그 生活樣式에 적응할 것을 강요하였다. 즉 日本은 1876年 韓國과의 修好條約에 의하여 海外通商을 시작하고 外國市場으로 進出하는 길을 열었으며 韓半島를 중심으로 列強이 利權角逐을 벌이는 가운데 清日戰爭과 露日戰爭에서 勝戰한 결과 韓國에 대한 完全한支配權을 장악하였다. 그후에는 韓半島를 日帝의 大陸政策의 완전한 據點으로 삼기 위하여 1905年 保護國化하고 뒤이어 1910年에는 韓日合併形式으로 韓國을 强占하여 36년에 걸쳐 韓國을 組織的으로 착취하는 길을 마련하였다. 이 實質은 李清源이 지적한 바와 같이 「日本의 大陸政策에서 新時代의 開始이며 따라서 일보 前進하는 것」을 意味하였다.<sup>(2)</sup>

韓國의 保護國化(半殖民化)와 合併(殖民地化)의 전략은 무엇보다 帝國主義列強의 世界體

\* 서강대학교 行政大學院 教授

(1) 金雲泰, “日本の 對韓植民支配의 基調로서의 同化政策 이데올로기,” 『행정논총』, 제23권, 제1호, 1985. 참조.

(2) 李清源, 『朝鮮讀本』, 東京學藝社, 昭和 11年, p. 23.

系構築에 뒤맞춰 露日戰爭을 매개로 추진된 日本未熟資本主義의 獨占資本主義에로의 移行과 밀접한 關聯을 갖는 것이었다. 이러한 事情은 그들 모순의 深化에 직면하였던 日帝의 아시아支配의 擴大로서 大陸政策의 개시를 의미하였을 뿐 아니라 韓末 甲午, 光武改革以後 성장해 온 韓國의 모든 自生的近代化試圖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기도 하였다.

이리하여 韓日合併以來 韓國은 日本資本主義의 外地로서 그리고 日帝의 大陸政策實現의 직접적 교<sup>1)</sup>보로서 日本資本主義의 國內市場과 결부되어 그 發展에 박차를 가하게 된 것이다. 그후 日帝는 韓半島를 교두보로 하여 滿州를 占領하였으며 나아가서는 滿蒙과 中國大陸侵略을 企劃하였다. 특히 滿州事變은 滿州를 日帝의 植民地로 만든다는 目的 이외에 명참기지로서의 植民地韓國의 支配基盤을 보다 더 공고히 하려는 속셈에서 시작된 것이다. 間島地方의 抗日獨立運動과 滿州各地에 散在한 韓國人 武裝集團의 反日獨立運動은 韓國의治安을 크게 위협하는 것이었다. 당시 滿州事變을 터뜨린 장본인인 關東軍參謀「이시하라 간지」나 「이따가끼세이시로」(板垣征四郎)도 그들이 滿州事變을 일으킨 첫째가는目的이「朝鮮統治」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sup>(3)</sup> 이것을 통해서 보더라도 日帝의 大陸侵略의 據點으로서 植民地韓國支配의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으며 아울러 滿州를 무대로 日帝侵略者들과 獨立鬪<sup>2)</sup>을 하던 韩國人 抗日運動의 比重과 意義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韩國人の 滿州 및 시베리아 移住狀況과 그들의 抗日性向을 보면<sup>(4)</sup> 전부터 定着하고 있는 약 100萬名의 韩國人(대부분 農業에 從事함) 이외에 韩日合併以來 그 移住者가 특히 증가하고 있으며 1910年 9月 以來 1921年末까지의 期間에 새로 滿州, 시베리아에 移住한者は 24萬 1千名에 달하였다. 同期間의 歸還者 5萬 8千名을 제외하면 아직 18萬 3千名의 移住定着者가 있었다. 그리고 奉天駐在 日本總領事館의 調査에 의하면 所管內 韩國人移住의 추세는 1913年の 336名, 1917年の 436名에서 1918年에는 2,061名, 그리고 특히 3·1運動後인 1921年<sup>o</sup>는 5,017名으로까지 激增하였다. 이들 韩國人の 이 地域으로의 移住動機에 관하여 矢内原忠雄은 「政治的 不平과 經濟上의 壓迫」에 基因한 것이라 하였으나 실은 日帝의 植民支配를 面對하고 抗日獨立運動을 展開하기 위하여 滿州와 시베리아에 많은 韩國人愛國者가 移住하였던 것이다며 아울러 日帝의 强占後 韩國農民의 耕作地喪失 또는 日本人農耕地의 所有·經營 등 經濟的 壓迫에 못이겨 移住한 韩國人은 20年代와 30年代에 격증하였던 것이다. 寺內總督은 이들 韩國人の 移民을 「政治的 不平의 徒」라고 단정하고 이들이 國外로 빠져 나가기 때문에 「統治上의 困難이 증가하는 原因」이라고 하여 移住를 억제하는 政策을 강구한 것이다. 이렇듯 滿州, 시베리아地域은 日帝의 植民地韓國支配를 위협하는 抗日獨立運動基地가 되었던 것이다 滿州事變을 계기로 日帝는 抗日戰鬪基地를 平定한 셈이 되었던 것이다. 이로써 韓半島는 日帝의 大陸侵略의 兵站基地로서 제반 與件을 갖추어 간 것이다.

(3) 姜東鑑 「日帝의 韓國侵略政策史」, pp. 361-63.

(4) 矢内原忠雄, 「植民及植民政策」, p. 378.

이와 같이 日帝는 韓半島를 軍事的으로는 大陸侵略의 兵站基地로 삼고 또한 經濟的으로는 植民地로서 수탈대상인 동시에 日本資本主義 大陸政策의 前進基地로 삼고자 한 것이었다. 이 때문에 韓日合併 後의 對韓植民政策은 西歐帝國主義 列強의 植民政策과는 물론이오 臺灣등 여타의 日本의 植民地政策과도 다른 特徵을 지니게 된 것이다. 그것은 朝鮮總督의 軍事獨裁의 地位와 기만적인 「同化政策」을 표방하여 준엄한 民族抹殺政策을 강행한 데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植民地韓國에서 總督府組織의 行政, 司法, 警察 등 各分野의 엘리트充員이 있어서는 民族勢力의 參與를 극력 봉쇄하고 韓國人은 總督官僚組織의 末端技能職에만 주로 充員하였을 뿐 小數의 親日 韓國人을 포함하여 日本人이 모든 政治的 要職을 직접 獨占하는 이론마 直接統治 또는 直轄的 統治를 한데서도 그 特徵을 발견할 수 있었다.

무릇 1876년에 시작하여 韓日合併을 거쳐 第1次大戰과 3·1獨立運動期까지 계속되었던 日本의 植民地韓國에서의 重商主義의 收奪은 植民地母國인 日本資本의 本源的 蕊積을 도와 日本資本主義의 獨占段階로의 移行을 촉진시키고 日本資本主義의 급진적 발전으로 도약하는 것을 成功시켜 世界的인 帝國主義國家로 성장하는데 寄與하였다. 1920年代에 있었던 朝鮮產米增直을 중심한 植民地產業政策은 그들 農業機構의 모순으로부터 빚어진 쌀부족을 植民地收奪을 통하여 解決하려는 것으로 日本의 慢性的 恐慌에 대처하여 農業停滯를 타개해서 日本資本主義의 發展의 길을 트기 위한 것이었다. 동시에 產米增殖運動으로 韓國에서典型的인 植民地型 米單作體制를 구축한 결과 「놀랄만한 生產性의 向上」이 있었음에도 不拘하고 오히려 所得의 불평등과 「極甚한 農民의 빈곤」을 가져 오고 農民層의 上下分化를 촉진시켜 地主制의 擴大를 가져 왔으며 農業의 영세구조를 심화시켰다.<sup>(5)</sup> 그리고 1930年代에 들어서 실시된 「農村振興運動」과 일련의 工業化政策은 새로 얻은 植民地滿州를 발판으로 中華大陸을 侵略・經營하기 위한 兵站基地로서 韓國의 저렴한 工業資源을 이용하여 한편으로는 日本獨占資本의 韓國進出을 本格화하고 日本本國의 工業生產不足을 補完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日本의 軍需產業體制를 再編成하여 高度國防體制를 完備할 目적으로 시도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日帝는 1940年代에 들어와서 侵略戰爭을 확대시켜 太平洋戰爭을 전개하자 經濟恐慌과 侵略戰爭에 의한 막중한 負擔을 특히 植民地韓國人民에게 과중하게 轉嫁하였다. 즉 韓國에서 物的, 人的資源을 강제로 總動員하고 韓國의 農產, 鎳產資源을 抽탈한 것이다.

韓國이 近代化過程에 들어서면서부터 爽트기 시작한 資本主義의 經濟構造는 韓民族의 自主的 努力으로 成長한 것이 아니고前述한 바와 같이 日本資本主義의 利益을 위하여 또는 日本帝國主義의 侵略目的을 위하여 歪曲된 形태로 發展되었기 때문에 依存的 不具의 체질을 끌내 면할 수 없었고 그 化石化된 後遺症은 解放 後 南北이 分斷된 狀況에서 야기된 經濟構造의 二重的 跛行性과 겹쳐 오택동안 韓國經濟 體質을 脆弱化시킨 根因이 되었던 것

(5) 林丙潤, 「植民地にすける商業的農業の展開」, 東京大出版會, 1971. 参考.

이다.

韓國開拓過程의 初期에서부터 가장 영향을 많이 주었던 日本은 본래 지극히 가난하였으며 地理的으로 아시아 東北쪽에 외마로 位置한 데다가 鎮國政策을 고수하였고 住民生活의 落後와 自然資源의 희소성 등으로 歐美諸國이 植民地分割에 광분하였던 19世紀에 있어서 門戶開放을 강요당하면서도 그들에게 植民地化의 侵略誘因을 주지 못하였다. 즉 西勢東漸의 위협 속에서도 日本은 西歐의 資本家나 政府에게 신뜻 侵略의 威力を 주지 못하였고 또한 帝國主義 歐美列強의 마지막 侵奪의 對象이었던 中國과 地理的으로 가깝다는 地政學의 인 重要性과 日本의 獨立을 간신히 유지시켜 준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對外的 危機狀況에서 日本의 支配層으로 하여금 認識하게 한 심각한 國家的 危機意識은 이른바 「抑摩의 移讓」心理<sup>(6)</sup>에서 對外侵略을 일삼게 하고 日本을 急速히 植民地列強에 가담케 하는 作用을 하였다. 즉 資本主義의 工業化를 위한 資本의 本源의 蓄積도 없었고 또 그것을 위한 自然資源도 不足하였던 日本은 弱肉強食의 植民地爭奪時代에서 勝利者로 살아 남기 위하여 隣近國家에 대하여 뒤늦게 植民地化의 길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商業資本主義段階를 거치고 있었던 日本은 마치 16世紀에서 19世紀初에 걸쳐 西歐商人이 추진세력이 되어 노골적인 「勿理的」暴力에 의한 약탈과 不等價交易에 의한 수탈의 기회를 가까이 있는 이웃 나라 韓國에서 누리고자 하였다. 1873年「사이고오」(西郷隆盛) 일파에 의한 소위 征韓論은 經濟적으로는 資本의 本格的 蓄積過程을 조속히 완료하려는 日本資本主義의 야망을 代辯하는 것으로 결국 日本支配層의 一致된 政策이 되었다. 1876年の 江華島條約以後 日本은 條約上의 不平等條件를 利用하여 韓國에서 貿易을 擴大하고 原始的 商去來와 西歐工業國에서 수입한 여타 商品, 소위 船來品을 韓國에 專賣하는 仲介貿易을 병행하는 가운데 韓國에 대한 商業的 收奪을 強化하고 經濟的 隸屬化를企圖하였다.

1905年 韓國을 保護國化하고 1910年 韓國을 强占한 日帝는 食糧과 工業原料를 탈취하고 高利貸金으로 착취하였으며 原始的인 商業的 收奪을 계속하는 동시에 土地調查事業과 會社令으로 韓國農民으로부터 土地를 收奪하고 傳統的인 生產手段의近代化를 막음으로써 日本資本主義 引進에 韓國經濟를 隸屬化시키는 政策을 강행하였다. 또한 產業, 交通, 運輸, 電信, 貿易, 金融 등 각 部門도 植民地的 隸屬經濟體制로 再編成, 韓國經濟를 완전히 장악하여 政治的, 經濟的 支配의 基礎로 삼고 日本資本主義를 키우고 그 취약성을 보강하기 위하여 食糧, 金銀 등의 財貨를 거의 無償에 가까운 할값으로 약취하는 등 原始的인 掠奪政策을 감행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1919年 3·1獨立運動은 日本의 植民地 經濟政策에도 키다란 變化를 가지 왔다. 즉 韓國을 食糧 및 工業原料 供給地로서 또한 商品의 獨占的 販賣市場으로서 개발·종속시키는데 치중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우선 會社令을 철폐하여 民族資本으로 하여금 丘代의 資本主義企業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길을 틔놓았다. 그러나 이같은

(6) 丸山眞男, 「現代政治の思想と行動」(增補版), 未來社, 1973, p. 25.

植民政策의 發展이 순전히 3·1運動의 經濟的 成就라든가 혹은 日帝의 文化政策 또는 寛容政策이었고 생각할 수는 없으며 적어도 植民地韓國에서 會社令이 철폐된 것은 순전히 日本의 資本主義 發達이 필연적으로 條件짓게 한 經濟事情의 變化의 結果였다.

第1次 大戰을 거쳐 3·1運動 後부터 日本의 對韓植民經濟政策은 종래의 重商主義 時代를 지나 自由主義時代의 特徵인 自由貿易이라는 기치 아래 지금까지의 무궤도한 收奪을合理化시키는 政策으로 移行하였다. 이는 日本의 資本主義가 第1次大戰의 好景氣를 지나고 난 뒤 植民地韓國의 農村經濟를 先進資本主義의 그물 속에 끌어 넣어 韓國을 原料의 供給과 商品의 販賣를 위한 기형적인 植民地의 從屬經濟體制로 再編成하는 것을 意味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日本資本主義가 유리한 資本投資의 市場을 韓國에서 發見한 때문이었다. 이리하여 日本은 이제 단순한 商品市場으로서가 아니라 投資市場으로서 韓國을 指目하게 되었고 日本資本家들은 韓國인의 賃金이 日本人의 半도 안되고 또한 10時間 以上의 勞動도 強要할 수 있는 有利한 投資條件에 매력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與件下에서 日本資本家들은 韓國에 대한 投資에 열을 올리게 되고 1926年에는 朝鮮水力電氣會社를 설립하여 赴戰江水力を 開發하였으며, 1930年에는 그 電力を 利用하여 朝鮮窒素肥料會社 興南工場을 建設하였다. 日帝는 1931年 滿洲事變으로 韓半島의 支配體制가 결고해 지고 大陸侵略을 本格화 시킴에 따라 韓國에 賦存하는 軍需資源의 開發의 必要성이 증대하였기 때문에 日本巨大財閥과 國家資本의 韓國投資는 더욱 촉진되었다. 이리하여 점차 韓國은 日本의 大陸侵略을 위한 兵站基地화해 갔던 것이다. 이로써 日本의 對韓植民政策은 帝國主義의 侵略性을 드러내면서 金融獨占資本家인 巨大財閥들로 擔當勢力이 바뀐 것이며 이들 財閥은 商品輸出보다도 資本輸出을 더 重視하게 되어 投資資本의 安定度를 높이기 위해 政治的으로 나아가서는 軍事的으로 植民地韓國을 더 확고하게 장악할 必要가 있었기 때문에 本國과 植民地의 政治權力+유착하고 日本軍閥과도 밀접히 제휴하게 되었다. 한편 日帝는 韓國을 大陸侵略을 위한 前進基地로서 또는 日本資本의 安定된 投資對象地로서 隸屬的 經濟體制를 구축하기 위하여 內鮮一體라는 슬로건 밑에 同化政策을 강화하고 皇民化政策을 강행하였으며 나아가서는 韓國의 保守的 地主勢力を 植民支配體制의 基盤으로 利用하여 植民地韓國을 日帝 안에 편입된 기형적인 從屬體制로 만들어 나갔던 것이다. 이와 같은 植民地經濟政策은 결국 韓國을 近代的인 自主國家와는 背馳되는 前近代的인 植民主義 隸屬體制로 몽어 두려는 意圖에서 회책된 것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合併 後 土着民族資本의 構成과 成長이 制約되어 오다가 會社令이 철폐되면서 비로소 資本構成이 시작되었고 게다가 日本의 巨大資本과 國家資本이 政治的・軍事的 背景을 가지고 韓國에 進出하여 投資를 경쟁하였기 때문에 미약한 土着資本은 이들 財閥의 競爭相對가 되지 못하였다. 土着資本과 巨大資本과의 利害는 언제나 相剋關係를 면치 못하였으며 部分的으로는 前者가 後者에 吸收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의 韓國進出에는 本國政界나

朝鮮總督의 政治的 背景이 필요하고 또 日本軍部의 支援도 필요하였기 때문에 對韓投資를 둘러싼 그들 간의 角逐은 日本의 政界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치열하였다. <sup>(7)</sup>

여하간 1930年代의 韓國의 工業이 급격하게 發展한 것은 否認할 수 없다. 1920年代까지의 植民地朝國 工業의 억압정책이 滿洲事變을 계기로 한 大陸侵略戰爭 遂行이라는 政策的目的을 위하여 일대 전환을 이루었고 그 때문에 重化學工業이 建設됨으로써 韓國의 工業은 外形的으로 나마 혁격한 變化·發展을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이 변화가 우리에게 그대로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었다. 이 工業화는 바로 日帝의 戰爭遂行을 위한 軍需生產을 위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즉 1930年代 以後에 이룩된 韓國의 工業화는 軍需生產을 위주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韓國內의 여타산업 특히 輕工業과의 產業的 聯關을 갖지 않고 日本產業의 고립적 식민지로서 斷片的으로 존재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 工業화는 技術的, 地理的으로 보다 유리한 北韓에 集中建設되었고 南韓은 工業化에서 제외되었다. 이같이 격심한 南北韓 間의 經濟力의 差는 解放 以後 分斷으로 말미암아 그나마 희박했던 北韓의 工業과 南韓의 農業, 北韓의 重工業과 南韓의 輕工業사이의 產業聯關을 파괴하니 南韓 產業構造의 跛行性과 經濟的 攪亂을 격증시키고 韓國人の 經濟力を 미약하게 함으로써 6·25戰爭을 절정으로 하는 政治的·經濟的 고난의 근본원인이 되었던 것은 否認할 수 없다.

요컨대 日帝의 對韓植民政策은 두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으니 우선 軍事的으로 韓半島를 大陸侵略의 據點 또는 교두보로 삼고 第2次大戰 期間 中에 日帝의 戰爭遂行을 위한 大陸前進 兵站基地化한 것이었다. 그리고 經濟的으로는 미숙한 日本資本主義의 工業화를 위한 食糧供給地 또는 原料(地下資源 포함) 供給地인 동시에 그 工業製品販賣를 위한 獨占的 商品市場으로서 韓國經濟를 植民地의 隸屬經濟體制로 再編成한 것이며 나아가서는 日本資本主義의 大陸政策遂行을 위하여 韓國을 前進基地化했던 것이다.

(7) 李清源 「朝鮮讀本」, pp. 3-6.

高承濟 “日帝下의 產業經濟史”, 「韓國現代文化史大系 Ⅳ」, pp. 533-99.